

전북 농어촌 민가의 특성

- 전라북도 민가건축의 평면유형에 관한 연구 -

남해경 / 전북대 도시건축공학부

I. 서론

민가는 민중의 건축(folk architecture)으로서 지역 주민의 욕구(need)와 가치(value)를 직접,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¹⁾ 특히 민가건축은 그 지방 특유의 자연적, 인문적, 사회적 환경 요소들을 직접·간접으로 가장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가건축은 지역 주민들이 오랜 세월동안 축적시킨 그들의 지식과 능력, 이용할 수 있는 재료, 경제력 등에 의하여 자신의 필요와 주어진 환경에 가장 적합한 양식으로 건축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민가건축은 그 지방 고유의 평면유형이나 입면상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이는 민가건축의 공간구성 및 조영양식에 반영되어 지역성과 시간성을 직접, 간접으로 반영하는 산물이 되는 것이다. 즉, 지형지세 및 기후 등의 자연조건과 사회제도, 문화수준, 생활양식, 풍습 등 민족성과 인문적인 요소가 서서히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그 지역의 정주에 적합한 양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문적, 자연적 환경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진 주거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지방의 민가건축을 대상으로 지역의 환경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주거발달 과정에서 평면의 전개과정을 고찰한 다음, 이에 관한 평면상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민가건축의 평면 유형에 있어서 기존의 민가건축의 연구에서 시도되었던 이론들과 전라북도 지방의 민가건축을 비교·고찰함으로써 새로운 유형화의 내용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전라북도 지방의 민가건축이 기존의 민가건축 유형화 연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남부지방형의 一자형 평면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민가건축에 관한 유형화나 민가건축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나 국지적인 지역의 민가건축에 관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II. 지역의 환경

1. 자연환경

전라북도 지방은 노령산맥의 산세를 이어받아 동고서저(東高西低)의 단형지형(段形地形)을 이루고 있어 동부는 산간지방을 형성하고 서부는 평야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동쪽에는 소백산맥, 차령산맥 등으로 이루어져 해발 1,000m에 이르고 있으며 서쪽에는 군산반도, 변산반도 등의 해안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고별 지형의 구성은 100m 이하가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어 전형적인 평야 지역을 이루고 있다. 세부적으로 100m이하의 지역이 51.5%, 100~500m 지역이 33%, 500~1,000m 지역이 13%, 1,000m 이상의 고지대 지역이 2.5%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발 500m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상을 산간지방으로 하였고, 그 이하 지방을 평야·해안지방으로 구분하였다.

1) Amos Rapoport,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 Hall Inc., 1985, pp.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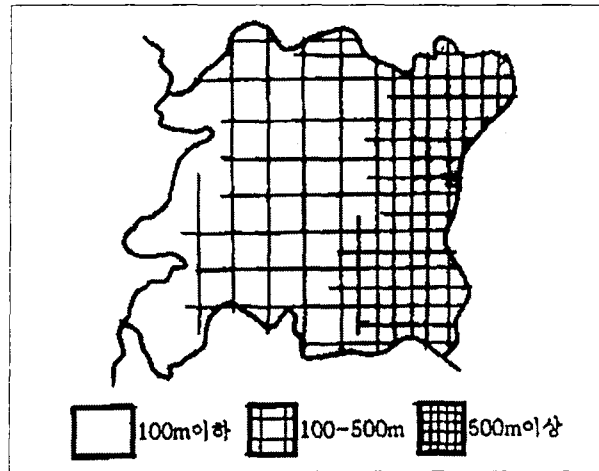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대상 지역의 표고

전라북도 지방의 기상은 표 1과 같다. 표에서와 같이 전라북도 지방의 전체적인 평균 기온은 12.3°C이며, 산간지방과 평야지방은 1.1°C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고 기온은 해안평야지방과 0.8°C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최저기온은 두 지역이 무려 1.3°C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면 전라북도 지방의 기온은 평야지방과 산간지방의 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수량은 해안평야 지방이 적고 산간지방이 많으며 적설량은 산간지방이 전체적인 평균보다 무려 5.4cm 많은데 이들 눈은 12~1월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다. 풍속은 전체적인 평균보다 해안평야지방이 강함을 알 수 있으며 풍향은 똑같이 SE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를 볼 때 전라북도 지방의 자연환경은 동부지방은 전형적인 산간지방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해안, 평야지방은 전체적으로 남부지방의 전형적인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연현상은 이들 지방의 농작물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동부지방은 고랭지 농작물이 주로 생산되는데 반하여 서부 지방은 전형적인 쌀농사 위주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표 1. 연구대상 지역의 기상

	연평균기온 (°C)	최고기온 (°C)	최저기온 (°C)	강수량 (mm)	적설량 (cm)	연평균풍속 (m/s)	풍향
산간지방	11.7	30.6	-9.4	1,408.5	17.1	1.3	SE
해안·평야지방	12.8	31.4	-8.1	1,298.3	11.7	1.9	SE
전북평균	12.3	31.00	-8.75	2,706.8	14.40	1.60	SE

자료: 전북통계연보 및 각 시군 통계연보(1985-1994)

2.2 인문환경

전라북도는 삼한시대 마한국의 중심지로서 일찍이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였고, 3국 시대 때 신라와 백제의 접경지역으로 양국의 문화가 혼용된 지역이다. 또한 후백제의 도읍지이자 조선조의 발상지로서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꽃피워 왔던 곳이다. 이 지방에서 주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것은 주거지의 발굴 등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반도의 다른 지역과 같이 주거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에도 영남과 호남의 접경지역으로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해 오고 있다. 전북지방의 평야지역은 산업이 거의 논농사 위주의 농업지역인데 반하여 산간지역은 밭농사와 고랭지 농작물 생산을 주로 하고 있다. 해안지방에서는 바다를 대상으로 한 어업과 갯벌을 중심으로 한 수산양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Ⅲ. 민가건축의 유형

3.1. 기존 연구의 관점

민가건축의 연구, 특히 민가건축의 유형화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민가의 개념은 연구대상, 연구목적, 연구방법 등의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한 가운데 기존의 유형화 연구에서 지금까지 연구방법은 크게 3가지의 관점 즉, 지역적 특성, 평면, 집의 규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²⁾

현재까지 민가건축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는 상기의 연구 관점에서 여러 가지 설이 대두되어 왔다. 이들 유형화 연구에 있어서 전북지방의 민가건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岩槻善之는 이 지역의 민가를 남산형(南鮮型)에 포함하고 있으며 건축 평면의 특성은 一자형으로 반드시 대청을 설치하고 있다고 하였다. 野村孝文은 이 지역의 민가건축 평면을 일반형으로 분류하고 평면은 一자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영택은 이 지역의 민가건축을 남부형으로 분류하고 평면은 一자형을 기본으로 二자형, ㄷ자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보웅은 평야형과 단열형(單列型)으로서 평면은 一자형, ㄷ자형, ㄱ자형, ㄴ자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남철은 남부지방형으로 一자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성기는 호남지방형으로 평면구성이 다양한 실의 조합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김정기³⁾, 김홍식⁴⁾, 김광언⁵⁾, 신동철⁶⁾, 정경운⁷⁾ 등의 분류가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이 지역의 민가를 남부지방형의 一자형 평면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관점에서의 유형화 이론은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연구의 내용으로 삶의 집적체인 민가건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점을 지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민가건축에 대한 연구는 이들 방식을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방식으로 종합하여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3.2 조사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 내에 위치하는 민가건축으로 하였으며 평면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는 민가건축의 평면 유형이 지역의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조사내용은 각 민가건축의 평면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기존의 연구에 의하여 실측된 내용은 문헌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이를 확인하였으며 이외의 민가건축은 연구자가 직접 실측하였다. 조사대상은 시대별로 1910년 이전에 건축된 민가건축을 원칙적인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민가건축은 그 이후의 것이라도 포함하였다. 이들 대상은 조사당시까지 존재하는 건축물로서 현상 그대로를 실측하였으며 변형된 민가건축은 변형되기 이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대규모의 상류주택은 제외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중류 이하의 주택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는 상류 주택의 경우 일시적인 경제력에 의하여 건축되었기 때문에 환경적인 영향이 아무래도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조사시간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까지 실시하였으며 공간적으로는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지방에 한정하였다.

2)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88, pp.6-7

3) 김정기는 <한국주거사>에서 북부형, 서부형, 서울형, 중부형, 남부형, 제주도형으로 분류하고 전라북도 지방의 민가건축을 남부형의 一자형 평면으로 분류하고 있다.

4) 김홍식은 <한국 민가의 유형별 분류>에서 외통집, 양통집, 겹집, 곱은자집으로 분류하고 있다.

5) 김광언은 <한국의 주거민속지>에서 민가건축을 홑집과 겹집으로 분류하고 전라북도 지방의 민가건축을 홑집으로 분류시키고 있다.

6) 신동철은 <남서해 도서 민가건축에 관한 연구>에서 민가건축을 북부형, 서부형, 중부형, 서울형, 남부형, 제주도형, 남서해 도서형으로 분류하고 전라북도 지방의 민가건축을 남부형에 포함시키고 있다.

7) 정경운은 <한국민가의 기초적 연구>에서 한국의 민가 건축을 동부지방형, 서북지방형, 중부지방형, 서남지방형, 동남지방형, 제주도지방형으로 분류하고 전라북도 지방의 민가건축을 서남지방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2. 민가건축 표본의 분포

	전주	완주	군산	김제	부안	정읍	익산	순창	남원	장수	진안	임실	계
II-1		1						1			1		3
III-1	2	8	3	8	3			1		3	1		29
III-2				1				1		1	2		5
IV-1	1	2		2	1	1	1						8
IV-2								2		1			3
IV-3								1		2			3
IV-4								1		1	1	1	4
IV-5									1				1
IV-6								1					1
IV-7								2					2
IV-8								4			1		5
V-1		1								1			2
V-2								1				1	2
V-3									7				7
계	3	12	3	11	4	1	1	15	8	9	6	2	75

조사된 민가건축의 표본은 표 2와 같다. 표에서와 같이 전체 민가건축 표본은 총 75채로서 조사대상 지역에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3 민가건축의 유형

전라북도 지방의 민가건축을 조사하고 이들을 평면의 전개과정 관점에서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표2와 같다. 이들 평면의 유형화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평면의 유형은 민가건축을 분류하는데 기본이 되는 실(室)을 단위로 하였으며 평면의 형태가 전개(generating)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실은 부엌, 방, 대청을 중심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외에 도장, 마루, 출입구의 접근성, 생활상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이들 분류에 의한 유형은 그림 2와 같다.

3.4 분석 및 종합

각 민가건축의 평면 유형은 실에 의한 분류를 기본으로 분석하고 종합하였다.

1) II형(2실형)

이 형은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시원적인 유형으로 방과 부엌으로 구성된 2실형이다. 지역적으로는 완주군의 고지대와 진안군에서 볼 수 있었는데 구전에 의하면 전에는 이러한 집이 많았다고 한다. 구조적으로 진안군의 민가건축은 움집(hut)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내부는 2칸의 실로 구분되어 있으나 집 천정의 가구구조는 움집의 형태로 되어 있었다.

2) III형(3실형)

이 유형은 부엌과 방의 2실로 구성된 양식으로 부엌이 중앙에 있는 형과 끝에 위치한 형이다. 지역적으로는 대상지역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표본의 거의 반수 정도(4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양식이다. 구조적으로는 마루가 시작되는 형이기도 하다. 마루는 외부에서 제작하여 토상(土床)에 끼워 넣은 형⁸⁾이 있으며 이외에 건물의 전면에 위치하여 부엌과 방의 중심에 놓이거나 방의 전면 등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간을 연결하여 주는 공유공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루의 크기에 있어서 평야지방의 경우가 산간지방의 경우보다 폭이 넓게 나타나고 있어 평야지방의 경우 마루가 휴식기능도 수행함을 알 수 있었다. III-1형이 부엌을 중심으로 방이 나란히 연결된 형이라면 III-2형은 부엌을 중심으로 양쪽에 방이 연결된 유형이다. 생활상을 보면 III-2

8) 김홍식은 <한국의 민가연구 서설>에서 이 유형을 삼남지방 민가건축의 특징으로 언급하고 있다.

형이 결혼한 자녀가 같이 사는 2세대 동거형이 많았다고 한다. 이는 건축이 지역주민의 삶을 담는 기능까지도 수행한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III형은 부엌의 위치에 따라서 방이 배치되는 유형으로 이 지역의 기본적인 유형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IV형(4실형)

이 유형은 공간이 부엌과 방, 대청, 도장으로 구성된 유형이다. 지역적으로 IV-1형은 거의 전 지역에서 골고루 분포되고 있으나 나머지 형은 주로 산간지방에서 볼 수 있었다. 이 유형에서는 대청과 도장이 출현하고 있다. 즉, 부엌과 방으로 연결된 III-1형에서 안방의 뒤편에 도장이 추가된 평면 형태를 이루고 있다.(IV-2형) 일반적으로 평야지방의 경우 곡식을 저장하기 위한 도장기능의 공간은 옥외나 별도의 건물을 건축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곡식의 생산이 적은 산간지방은 곡식을 귀하게 여겨 안채의 내부공간에 도장을 두고 이를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도장의 기능은 산간지방의 민가건축에서 많이 발달된 형태를 알 수 있다. 한편으로 도장의 출입방식으로 그 집안의 경제권을 행사하는 생활상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즉, 경제권이 집주인이 행사하는 경우 도장의 출입은 안방을 통하여만 이루어지나 분가한 자제가 있는 경우 마루나 외부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IV-7형부터는 민가건축에서 대청이 나타나고 있다. 평면의 구성은 부엌+방+대청+방의 구성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류이상의 수준을 누리는 민가건축 양식이며 서민형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은 하류에서 중류로 넘어가는 정도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유형에서 도장은 대청뒤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다.

평야지방의 경우 부엌과 방이 전면의 마루를 통하여 공유되는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산간지방의 유형에서는 마루가 전면이나 후면에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홑집에서 겹집으로 전개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4) V형(4실형)

이 유형은 5실형 이상의 민가건축으로 경제적으로는 중류 이상의 능력을 소유한 집들이다. 지역적으로는 완주군의 산간지방과 전라북도의 대다수 산간지방에서 볼 수 있는 형이다. 공간구성은 부엌, 방, 대청, 도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의 유형에서 더욱 전개된 형태이다. 건물의 평면은 지금까지의 一자형 평면에서 발전하여 ㄱ자형, ㄷ자형, 田자형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田자형의 경우 방과 방이 겹쳐지기는 하지만 완전한 형태의 겹집이 아닌 방과 도장이 중첩되거나 아니면 방이 1.5칸으로 구성된 겹집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 한반도의 북부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2칸의 겹집과는 차이가 있는 반겹집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의하여 민가건축의 평면이 어떻게 전개되고 이에 의한 특성을 고찰하고자 수행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전라북도 지방의 민가건축은 평면유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전반적으로 一자형을 이루고 있으나 산간지방의 경우 ㄱ자형, ㄷ자형, 田자형 등의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었다. 실의 구성에 있어서도 3실형까지는 일반적인 평야지방형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4실형부터는 산간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도장이 나타나고 있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평야지방형의 홑집과는 다른 겹집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으로 기존의 민가건축의 유형화 연구에서 대두되어 온 남부지방 유형이나 평야지방의 유형과는 다른 이 지방 특유의 양식인 반겹집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2. 산간지방의 민가건축에 있어서 도장과 작은방의 출입구 형식 및 공간구성 관계를 통하여 집주인의 경제권 행사 내용과 세대간의 동거관계 등 생활상을 알 수 있었다.
3. 평야지방의 경우 산업구조에 의한 수장공간이 외부공간이나 별도의 건물을 통하여 수행되었던데 반하여 산간지방은 안채의 내부공간에서 수장의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어 각 지역별 경제의 내용이 민가건축에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88
2.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86
3. 장보웅, 『한국의 민가연구』, 보진재, 1981
4. 주남철, 『한국의 주택건축』, 일지사, 1980
5. A.Rapoport,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 Hall, Inc., 1985
6. Gray T. Moore, 『Emerging Methods in environmental Design and Planning』, MIT Press, 1970
7. R.W.Brunskil, 『Illustrated Handbook of Vernacular Architecture』, Faber and Faber, 1978
8. Victor Olgay, 『Design with Climat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9. W.J.Mitchell, 『Computer Aided Architectural Design』, VAN NOSTRAND REINHOLD, 1977
10. 野村孝文, 『朝鮮の民家』, 學藝出版社, 1981
11. 남해경, 『CAD System을 응용한 한국 민가건축의 유형화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1992.2
12. _____, 『전라북도 산간지방의 민가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4. 2, pp.75-83
13. _____, 『Shape Grammar를 도입한 주거건축의 유형화에 관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7권 3호, pp.135-141
14. _____, 『Hierarchical Structure를 응용한 민가건축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7권 제5호, pp.117-124
15. _____, 『전라북도 평야지방의 민가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전북지부논문집, 1995. 12, pp.10-22
16. _____, 『민가건축의 유형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전라문화연구 제4집, 전북대학교, 1990
17. _____, 『섬진강 상류지역의 민가건축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8. 안경운, 『전북 완주군의 민가특성과 주생활에 관한 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1988
19. 조성기, 『한국남부지방 민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1985
20. B.Hillier, J.Hanson, H Grahms, *Ideas are in Things:an Application of the Space Syntax Method to Discovering House Genotypes*, Environment and Planning B, 1987, pp.363-385

유형	단위	형태
II-1		
III-1		
III-2		
IV-1		
IV-2		
IV-3		
IV-4		
IV-5		
IV-6		
IV-7		
IV-8		
V-1		
V-2		
V-3		

그림2. 민가건축의 유형

민가건축 목록

유형	위치	표본수
II-1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강씨가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김삼섭가 진안군 성수면 달기리 김대근가	3
3실형	III-1	29
	III-2	5

4실형	IV-1	김제시 서정동 배씨가 전주시 색장동 광씨가 정읍시 영원면 후지리 박씨가 익산시 왕궁면 등룡리 김씨가 완주군 소양면 수만리 무명씨가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박씨가 김제시 서정동 송씨가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십씨가	8
	IV-2	임실군 둔남면 둔덕리 황광택가 장수군 변암면 대론리 안씨가 장수군 변암면 대론리 안씨가	3
	IV-3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박관식가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박해영가 순창군 구림면 자양리 김씨가	3
	IV-4	진안군 성수면 달기리 김용구가 장수군 변암면 대론리 임씨가 임실군 관촌면 북흥리 손씨가 순창군 구림면 자양리 김종주가	4
	IV-5	남원시 이백면 내동리 안선모가	1
	IV-6	순창군 구림면 자양리 김씨가	1
	IV-7	순창군 구림면 자양리 한일남가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권필주가	2
5실형	IV-8	순창군 구림면 자양리 이씨가 진안군 성수면 좌단리 서씨가 순창군 금곡면 석촌리 설진수가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권일택가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양순옥가	5
	V-1	완주군 봉동면 은하리 최씨가 장수군 장수읍 무명씨가	2
	V-2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신선우가 임실군 둔남면 둔덕리 이병재가	2
	V-3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박금기가 남원시 민가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박양식가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박관식가 남원시 민가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장씨가 남원시 민가	7
	계		75